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EUROPE

유럽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8/03~08/09

1. 유럽 주요 항만 및 공항의 이커머스 물류 처리량 변동과 운영 전략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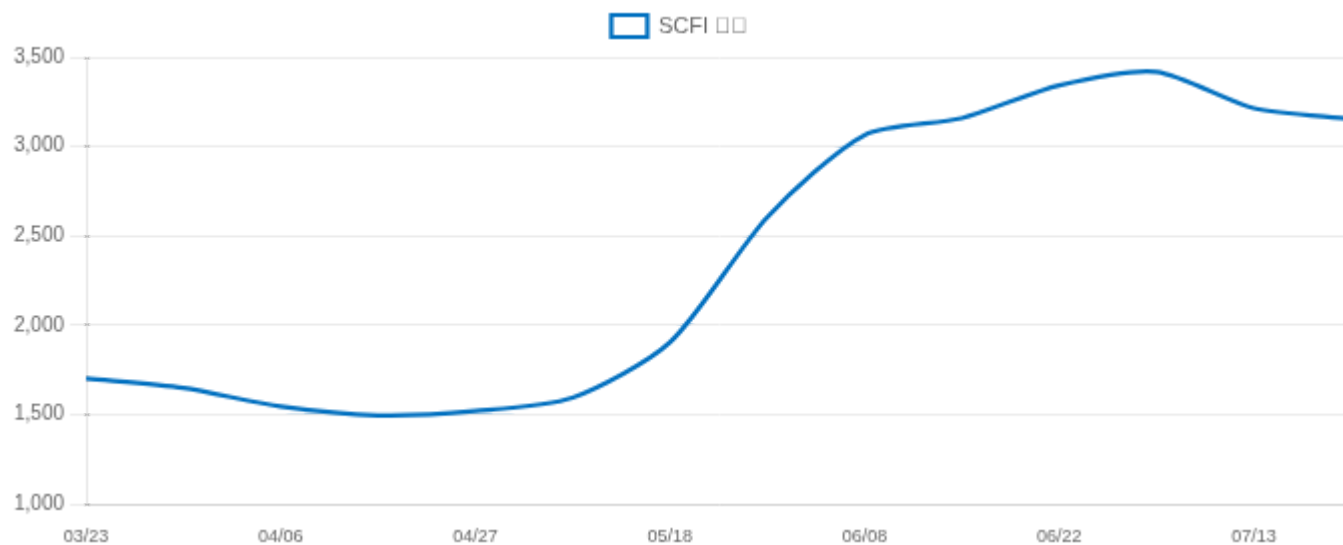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유럽 이커머스 물류는 EU의 비EU산 소액 면세 폐지 조치가 본격화되며 주요 항만·공항에서 물동량 급감이 두드러졌으나, 뮌헨 공항은 견조한 물량을 유지하며 공급망 재편과 허브 공항 간 전략적 대응 차이가 부각됨.

이는 동유럽 일부 국가의 신규 관세 집행 유예로 화물 경로가 분산되고, 각 공항의 운영 역량과 시장 대응 전략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는 흐름으로 이어짐. 향후 집행 유예 종료 시점과 EU 회원국 간 조화로운 관세 체계 구축 여부가 물류 허브 재편과 업계 경쟁력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유럽	3,155 \$/TEU	07/20	-1.9%	-5.6%
KCCI 북유럽	4,884 \$/FEU	08/03	-1.3%	-8.4%
KCCI 지중해	5,933 \$/FEU	08/03	-2.9%	-8.3%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KCCI) · 기준 07/20

유럽 주요 항만 및 공항의 이커머스 물류 처리량 변동과 운영 전략

유럽 주요 공항의 이커머스 물동량이 7월 초부터 EU의 비EU산 소액 면세 폐지 조치로 급감한 가운데, 뮌헨 공항은 견조한 물동량을 유지하며 대조적 흐름을 보임. 이는 동유럽 일부 국가의 신규 관세 집행 유예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 허브 공항의 전략적 대응 차이에 기인함.

2026년 7월 초부터 유럽 대다수 공항의 이커머스 화물 처리량이 이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이는 EU가 비EU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 소액 화물의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제품군당 3유로의 정액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임. 해당 조치는 2028년 중반 의무화를 앞둔 과도기적 규정으로, 이미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시행에 들어감. 그러나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집행을 주저하면서 공급망이 루마니아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남.

이러한 이커머스 둔화 속에서도 뮌헨 공항은 신규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물동량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뮌헨 공항이 여타 공항 대비 이커머스 비중이 낮거나, 동유럽 우회 물량의 집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반면, 관세 집행을 유예한 동유럽 국가의 공항이나 인접 허브로 물량이 분산되는 공급망 재편이 진행 중으로, 서유럽 주요 공항들의 단기적 처리량 급감으로 이어짐.

EU의 이번 조치는 2025년 한 해에만 59억 건의 소액 면세 화물이 비EU 국가에서 EU 시장으로 유입되어 무관세로 유통되던 상황을 시정하고자 함. 이는 EU 역내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함. 매일 1,600만 개 이상의 소액 화물이 EU 소비자 대상으로 통관되는 현실에서, 급증하는 역외 이커머스 물량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됨.

현재 뮌헨 공항의 선전은 공항의 운영 전략과 지리적 이점에 기반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며, 2028년 규정 전면 시행 시 이커머스 물류 지형 전반이 재편될 것임. 항만 또한 유사한 규제 적용 시 컨테이너 화물의 소액 화물 혼재 감소 등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물류 주체별로 유럽 내 거점 재배치, 통관 전략 다변화 등 탄력적 운영이 요구됨.

- 2026년 7월부터 EU가 150유로 미만 비EU산 이커머스 화물에 3유로 정액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대다수 유럽 공항의 처리량이 급감함.
- 2025년 한 해 동안 59억 개의 소액 면세 화물이 비EU 국가에서 EU로 유입되어 무관세로 유통되었으며, 매일 1,600만 개 이상의 소액 패키지가 통관됨.
-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신규 관세 집행을 유예함에 따라 공급망이 루마니아 등으로 이동하는 재편 현상이 발생함.
- 뮌헨 공항은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이커머스 물동량을 유지하며 여타 공항과 대비되는 흐름을 보임.
- 해당 규정은 2028년 중반 의무화될 과도기 조치로, 2028년까지 순차적·차등적 집행에 따른 물류 혼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망

EU의 소액 면세 폐지는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지속 추진될 것이며, 2028년 전면 시행 시 동유럽 우회 물량도 통제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유럽 공항·항만의 이커머스 물동량은 전반적 감소세가 예상되나, 통관 인프라와 부가가치 서비스를 갖춘 주요 허브로의 물량 집중도는 더욱 심화될 것임.

시사점

화주 — EU 역내 배송을 전제로 한 이커머스 화주는 관세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거나 현지 물류 거점 확보를 통한 우회 전략을 검토해야 함.

포워더 — 포워더는 동유럽 경유 루트 등 우회 통관 경로 개발과 통관 대행 서비스 강화로 신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항만·공항 — 주요 공항·항만은 이커머스 화물 유치를 위해 신속 통관 시설과 통합 물류 서비스 등 차별화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참고자료: Cargo Forwarder, Munich Airport bucks the e-commerce downturn (검색일: 2026-08-09)